

2 0 1 8 . 7 · 8 월 / 통 권 1 0 0 호

독립정신

권두언_한반도 대전환기, 〈독립정신〉 100호를 발행합니다

격려사_문재인 대통령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 격려사

100자 축하메시지_〈독립정신〉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독립정신 100호 기념 특별좌담_판문점회담·싱가포르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

기고_이범진·이위종열사기념관 개관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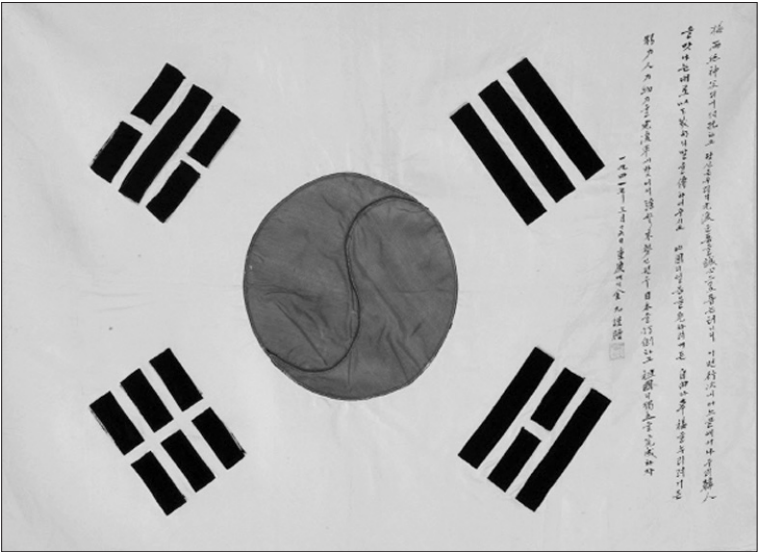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기념(치장, 1940.6.17)

한국혁명여성동맹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여성독립운동단체이다.

- 1줄 이현경(민필호 어머니) · 정정화(김의한 부인) · 이국영(민영구 부인) · 김효숙(송면수 부인) · 방순희(김관오 부인) · 김정숙(고시복 부인) · 김병인(이준식 부인) · 유미영(최덕신 부인)
- 2줄 ○○○(손일민 부인) · 조용제(조소앙 부인) · 송정현(유평파 부인) · 정정산(오광선 부인) · 오건해(신건식 부인) · 최동화(최동오 부인) · 김수현(이광 부인) · 노영재(김봉준 부인)
- 3줄 윤용자(이청천 부인) · ○○○(이건우 부인) · 이숙진(조성환 부인) · 최선휘(양우조 부인) · 오광심(김학규 부인) · 연미당(엄항섭 부인) · 최형록(조소앙 부인) · 이순승(조시원 부인)



김구가 미주 한인사회에 보낸 태극기(1941.3.16)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1941년 중국 미국으로 가는 미우스 오그 신부에게 준 태극기이다. 미주동포들에게 광복군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김구의 글이 쓰여 있다. 미우스 오그 신부가 미국에서 1년 동안 활동하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때 이 태극기를 도산 안창호의 부인 이혜련에게 전달하였는데, 1985년 안창호 유족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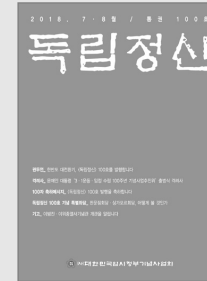


독립정신

2018 7*8

통권 100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족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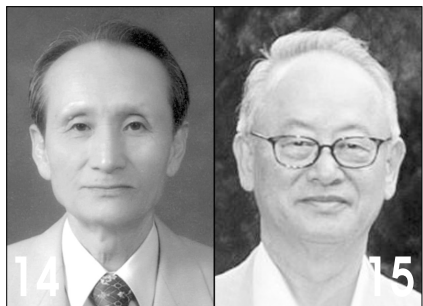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곽태원, 김대영, 최석우, 이일선, 박덕진,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 04** 권두언_
한반도 대전환기, 〈독립정신〉 100호를 발행합니다
| 김자동



- 08** 격려사_
문재인 대통령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 격려사
| 문재인



- 14** 100자 축하메시지_
〈독립정신〉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 김정록 · 김수옥 · 배성호 · 이부영 · 김효순 · 심옥주

- 17** 독립정신 100호 기념 특별좌담_
판문점회담 · 싱가포르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승환 · 김숙임 · 한홍구 · 장용훈

- 37** 기고_
이범진 · 이위종열사기념관 개관을 알립니다
| 이원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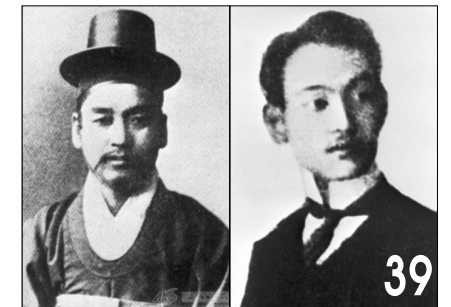
- 40** 긴급성명_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 주권자전국회의

- 42** 100년 편지_
임시정부 설계자 조소앙 선생님께
| 김삼웅

- 46** 다시 보는 좋은 기사_
돌아오지 못한 순국 영령과 산 자들의 책무
| 이만열

- 50** 임정서가_
채익진 평전 〈빨간 베레모〉
김구 선생이 얘기한 깨어 있는 시민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
현민 유진오 평전
| 편집부

- 58** 독립정신 이모저모



한반도 대전환기, 〈독립정신〉 100호를 발행합니다



김 자 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감개무량합니다. 제 나이 아흔 하나, 지금 눈 앞에 펼쳐지는 대전환을 지켜보는 소회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백년, 마침내 물줄기는 제 길을 찾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도도합니다.

거의 백년 전, 조부와 부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중국으로 망명하셨습니다. 임시정부와 풍상을 함께한 부모님 아래 제가 중국에서 태어난 연유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열망하는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1945년, 저는 중경 임시정부청사 옆 광복군 숙소에서 광복을 맞았습니다. 강도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에 환호하며 중경 시내를 밤늦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 환국 이후 역사의 질곡은 뼈아팠습니다. 친일부역자들은 청산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애국자연하며 득세했습니다. 백범이 암살되었고, 조국이 두 동강 났습니다. 백범과 우사가 걱정하던 사태가 뒤를 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이었습니다. 부친은 납북되었고, 모친은 어이없는 부역혐의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분단에 기생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 주류로 자리 잡았고, 독재 권력이 민주주의를 유린했습니다.

임시정부가 표방한 민주공화정은 빛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이 나라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나라라는 임시정부의 깃발은 훼손됐습니다. 민주공화정을 천명함으로써 오천년 민족사에 큰 획을 그은 임시정부는 역사 속에서 홀대받았습니다. 변변한 기념관 하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선열 앞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은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거센 물줄기가 4·19혁명과 5월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을 거쳐 오늘날까지 거세게 흐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주권선언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잘못된 행로를 교정하는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자기 확인이었습니다.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작년 겨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중경 임시정부청사 기념관에 앉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중경청사에서 임시정부 인사 후손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아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현재 정부는 기념관 건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확인하며 임시정부 백년이 바로 대한민국 백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표방한 민주공화정이 우리 사회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높이 평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또 한 번의 감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선열들의 땀과 피로 일군 대한민국 백년.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기운이 도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선열들의 강렬한 염원이 하늘과 땅을 감응시킨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의 호기를 어리석음이나 게으름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주공화정을 바로세운 거대한 촛불의 힘으로, 평화를 향한 민족의 요구를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칠십여 년에 걸친 비극의 분단체제를 끝장내야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저도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 미력을 보탰습니다.

곧 2019년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공화정 백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입니다. 마침 한반도 질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만개한 한반도를 열어나가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막힌 것은 뚫려야 하고 굽은 것은 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길이요, 역사의 순리입니다.

물줄기는 오른쪽과 왼쪽을 가리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받아들이며 자기 길을 갑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파였으면 메웁니다. 우리의 새로운 백년도 이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수용과 화합으로 가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봅니다. 1941년 11월 임시정부는 삼균주의를 기본이념 및 정책노선으로 확정했습니다. 조소앙 선생이 주창한 삼균

주의는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였습니다.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꿈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발행하는 <독립정신>이 어느덧 100호입니다. 그동안 <독립정신>을 지켜봐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이 오늘의 한반도 대전환기라는 역사를 불러왔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김 자 동



문재인 대통령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 격려사

존경하는 한완상 위원장께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7대 종단 대표 여러분,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위원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민주열사 유가족, 청계피복노조 여성 노동운동가와 파독간호사, 노조와 기업인 대표를 비롯한 예순 여덟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00년을 넘어 다시 희망의 100년을 위해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성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 위원회 최초입니다. 다른 위원회 구성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919년 한반도와 세계 각지의 하늘에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친 선언이자 실천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00년 전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습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국체로 선언한 것은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은 100년 동안 잠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주인공도 국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이 대담한 상상력의 바탕이 되었고, 한반도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책무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년들이 역사에서 길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삶에 자긍심을 가져야 새로운 100년을 열 수 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기념관에는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삶과 정신을 하나하나 충실히 담아낼 것입니다. 중국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이상룡 선생의 본가 안동의 임청각도 올해 말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복원에 착수할 것입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올해 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와 의병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옥고(獄苦)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모든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께 국가의 도리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70년을 이어온 남북분단과 적대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놓았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습니다.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적 자긍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1919년 3월 5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이화학당 친구들이 1만여 명의 청년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흘 뒤,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가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1907년 4월 22일, 고종의 특명을 받은 이준 선생은 이곳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헤이그에 이르렀습니다.

1936년 6월 4일, 스물넷의 마라톤 선수 손기정이 베를린으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오른 것도 서울역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도 1927년 서른하나의 나이에 같은 열차로 파리를 향했습니다.

서울역은 우리 역사의 주요 무대였고, 대륙으로 우리의 삶을 확장하는 출발지였습니다. 오늘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서울역에 남겨진 우리 역사의 발걸음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열리는 출범식이 새로운 100년을 알리는 기적 소리와 함께 지난 100년을 기념하는 힘찬 출발의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3일

대통령 문 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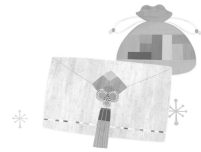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명단

김가을 반크청년공공외교대사
김귀옥 한성대 교수
김길열 중동실업 택시기사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 위원장
김미진 홍익대 미술대학원 부교수
김병연 파독간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감사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선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
김수옥 성모의원 원장
김수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관
김영호 서울특별시 시장 고문
김올가 KGSP학생, 전남대 박사과정 중
김의성 다락골농원 대표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 위원장
김하범 주권자전국회의 집행자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효순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문영미 이한열기념사업회 학예연구실장
박남수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유철 광복회 회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신순애 탁틴청소년인권센터 소장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원옥금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홍조 마리몬드 대표
 윤황 신문대학교 교수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공주 이화여대 약대 석좌교수
 이기연 질경이 우리옷 대표이사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상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에람 은평청년새싹공간 경영지원팀장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이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임순례 동문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종선 민족대표33인 유족회 회장
 임흥순 영화감독
 장미현 젠더공간연구소장
 장애진 동남보건전문대 재학 중
 장임원 참여연대 고문
 장주효 미소금융 대구서구지점 이사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상규 아틀리에BOOKS 대표
 정성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창현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
 조선희 소설가
 조천호 광주시청 공무원
 지은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차경애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차범근 차범근축구교실 이사장
 채광석 시인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홍서운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정사(正史)를 지킨 파수꾼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회보를 창간한 지 어언 100회.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임시정부를 훼손하는 비뚤어진 사관에 맞서 <독립정신>이 정사(正史)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 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친일은 애국의 결단이었다는 궤변, 교과서 국정화 뒤에 숨은 사이비 군상들의 음습한 역사조작, <독립정신> 필진은 이를 파헤치고 세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뜻을 펴려면 희생이 따른다’는 저의 영원한 신부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았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축원합니다. <독립정신>이여, 영원하라!

— 김정록(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자주와 평화의 교량

근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의 개최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화해의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독립정신의 임시정부 항일투사들의 오랜 숙원이던 자주 평화 실현을 현실로 꿈꾸고 있는 이 시기에 발맞추어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독립정신> 100호 발간을 알리니 그 의미가 소중하고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결실은 3·1 운동을 발판으로 건립된 자주, 평화, 민주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성과 정통성을 한결같이 응원하고 격려해 온 <독립정신>의 열정 때문이었음을 알기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얼과 임시정부의 맥을 이어, 진정한 자유 평화의 남북통일을 꿈꾸는 오늘을



임정 탄생 100년! <독립정신> 100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뜻깊은 축하를 나눌 수 있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 오롯하게 펼쳐낸 <독립정신>이 100호 간행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만들며 독립을 꿈꾸셨던 당신들과 지금 이 순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어린이들과 더불어 인사드립니다.

— 배성호(서울삼양초 교사,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공동대표)



3·1혁명 100주년엔 하나 된 우리를 보고 싶습니다

2019년은 3·1혁명 100주년입니다. 100년 전 이념도 지역도 남녀노소 상하도 없이 오직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온 겨레가 하나 되어 일어섰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전쟁을 치르고 분단-정전시대 65년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3·1 선열들을 뵈을 날이 없습니다. 내년 3·1 100주년 기념식은 보수도 진보도 파로가 아닌 하나로 선열들처럼 모였으면 합니다. 이래야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길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 이부영(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재인정부, 유골봉환에 진정성 보여주길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한국인) 유골이 일본 곳곳에 있다. 옛 탄광 지역 등 오지의 사찰에 보관된 유골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끌려간 조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지만, 기록이 없으니 그저 무연고 유골로 처리돼 있다.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역대 한국 정부는 유골봉환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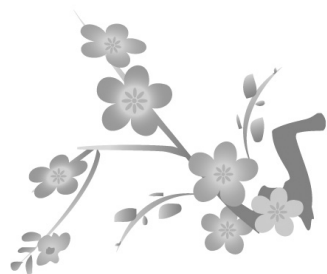
— 김효순(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독립정신엔 남녀가 없다

독립정신을 실천하는 데 남녀 구분은 없다! 임시정부의 안주인이었던 정정화 애국지사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의 고군분투했던 삶의 여정과 빛바랜 염원들이 독립정신에 담겨 후대가 기억하길 응원합니다.

— 심옥주(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판문점회담 · 싱가포르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승환 사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숙임 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부 기자

정리 : 최 석 우 독립정신 편집위원



<독립정신>은 100호 기념 특집기사로,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짚는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은 6월 21일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승환 회장, 김숙임 이사장, 한홍구 교수, 장용훈 기자, 네 분에게 감사드린다. 회보의 성격상 다소 부담스러운 분량이나,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회담을 평가한 자료임을 감안해, 좌담 내용 전체를 그대로 지면에 옮긴다. (편집자 주)

이승환 :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우리 한반도가 판문점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성과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김숙임 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님, 역사학계에서 정열적으로 활동하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님, 그리고 요즘 가장 바빠실 연합뉴스 북한부 장용훈 기자님,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신 장용훈 기자님이 말문을 열어주시죠.

장용훈 :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세 번째 취재라서, 남북정상회담은 크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판문점선언이 굉장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은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죠. 앞선 두 번의 정상회담 성과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북미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느낀 소감도, 뭐랄까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승환 : 남북관계의 굴곡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졌던 것도 역사적이었고, 북미 역시 수십 년 동안 적대관계를 이어왔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왔다

장용훈 : 그렇습니다. 사실 회담 전에는 CVID를 넣을 거네 말 거네 하면서 말들이 많았지만, 공동성명을 보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구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뒤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에서 분단질서가 바뀔 수 있는 계기점이 바로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분단질서의 변화가 우리 정치와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보여주는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한홍구 :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변화는 촛불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변화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들의 일생까지 지배하게 될 중대한 변화다. 1945년 분단될 때 38선 앞에서 사진 찍던 꼬맹이들이 지금 팔십이예요. 분단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당시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분단체제가 해체되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의 폭과 깊이를 뭐라고 설명해주기가 힘든데,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왕조 개창 이래 최대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숙임 : 판문점회담은 2000년 첫 정상회담도 있고,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은 칠십년 이상 요원했던 게 막상 눈앞에서 전개되니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 기대가 생겼어요. 이런 과정이 잘 되어서 분단체제나 냉전체제를 주도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면, 한반도가 세계 평화 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를 돌아보면 얄타, 카이로, 포츠담에서 한반도 냉전을 주도했던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지를 넘어 자주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기쁩습니다.

한홍구 : 사실 근현대사에서 보면, 역사적 기회는 몇 번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찬스를 놓쳤죠. 남북관계는, 1994년 남북정상회담이 김일성 주석의 서거로 불발됐고, 2000년 클린턴이 방북하여 조미수교가 이뤄질 뻔했지만, 미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좌절되었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지만 부시가 ‘악의 축’으로 틀어버려서 안됐고, 오바마가 당선되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는 ‘이명박근혜’, 이렇게 엇박자가 났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촛불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직후에, 북한이 ICBM을 개발했다거나, 트럼프의 독특한 성격이라든가,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단, 이런 안팎의 계기들이 맞물렸어요. ‘지난 100년 이래’라는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극단적 실용주의가 낳은 기적

이승환 : 대전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감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그토록 바랐던 상황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이냐. 이걸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친구나 후배들은 우리가 트럼프를 응원하고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몰랐다고 해요. (웃음) 이 변



이 승 환

화의 동인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장용훈 :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 실용주의자로 구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내놓았던 성명. 북한 입장에서는 굴욕적일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승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명을 김정은 위원장 때라면 절대 안 내놔왔을 거라고 봐요. 체면 같은 것보다도 결과로써 뭔가를 만들어보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무역분쟁을 보면, 극단적 실리주의,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회담을 가능케 한 동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승환 :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오바마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이란 게 결국 중국 봉쇄를 의미하고, 이를 위해 북한 핵과 한반도 분단체제를 적절히 유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 외교공식을 따르지 않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오바마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장용훈 :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갖다 놓고 돈을 쓰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차라리 북한과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발상의 전환.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만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사람의 극단적 실용주의,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북한과 미국의 극단적 실용주의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승환 :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 즉 한반도에 개입해서 ‘우리가 핵 억지력으로 너희 안보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 말 들어’라는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극단적 실용주의란,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미국의 전통적인 개입주의 전략 같은 외교적 도그마와는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설득할 수 있을 것

한홍구 : 트럼프가 미국사회에서 볼 때는 돌출적인 존재거든요. 지금까지 참모들 말 들어서 몇십년 동안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는 대장끼리 협상 바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남쪽에서는 다행히 수구세력이 힘을 잃었고, 북에서는 김정은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에 무슨 지렛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수용하겠다는 태도이고. 따라서 누가 뭐라 해도 트럼프 변수가 가장 중요한데, 임기 초반에 이런 일이 됐다는 게 다행이지만, 미국 사회가 북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을지.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미국 기자들 대단히 공세적이고 비판적이던데요. 장 기자님은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용훈 : 저는 트럼프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기득권층이나 식자층과 기층의 대중을 갈라치는 데 성공해서 당선됐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자신의 지지율 제고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삼십몇 퍼센트였던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치적 자산을 키워서, 중간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공산이 큼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 즉 한반도에 개입해서 ‘우리가 핵 억지력으로 너희 안보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 말 들어’라는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요즘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 사이에서 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지하지 않느냐,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공화당 주류에게 비판을 받을 때, 민주당이 닉슨을 지지하고 후원해서 미중관계가 만들어지는 토양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한홍구 :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게 72년 2월, 겨울이거든요. 정작 미중수교가 이루어진 건 79년이에요. 7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쫓겨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교가 이루어진 건 카터 행정부 때입니다. 문을 연 건 닉슨, 완성한 건 민주당. 이게 미국 주류사회에서 합의랄까, 이게 바로 불가역적인 관계인 데요. 이 불가역적 관계를 트럼프가 건재하고 있는 동안,金正은은 김정은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런 불가역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승환 : 미국 내 여론이, 싱가포르회담 결과를 51%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미국의 여론주도층이나 특히 언론은 CVID가 없다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제껏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뉴욕타임즈만 해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김숙임 : 저는 CVID가 빠졌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 예를 들자면 북에 말린 거 아니냐는 식의 모습들을 보면서, 상호신뢰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불가역적 비핵화만 고집하면서, 협상을 승자와 패자의 프레임 안에 가두려 한다면, 이건 평화로 나아가자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서로 '원원' 하겠다는 자세를 공유하려 하지 않고서, 회담을 진행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게 우선입니다.

때려눕힐 수 없다면 친구가 되는 수밖에

장용훈 :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동성명이 현재의 북미관계 수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합의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을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관계가 없던 상황에서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겁니다. 신뢰를 쌓아야 한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최상이라는 겁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2000년 남북 정상의 6·15선언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말하곤 합니다.

이승환 :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심 내세우는 근거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19 합의, 이런 것으로부터 훨씬 더 퇴보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CVID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렇다는 건데요.

한홍구 :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지금은 북이 없는 것들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해체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훨씬 커졌고, 그전까지는 북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미국이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북이 멸망하는 것만, 금방 망할 것으로 여기고 정책을 펴왔는데, 북이 핵을 만들고 ICBM까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장사꾼으로서, 극단적인 실용주의자로서, 북이 가진 카드의 실체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고, 때려눕힐 수 없다면 친구 삼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지요.

장용훈 : 공동성명이 북미관계의 큰 방향을 만들었다면, 공



김 숙 임

“

불가역적 비핵화만 고집하면서, 협상을 승자와 패자의 프레임 안에 가두려 한다면, 이건 평화로 나아가자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서로 '원원' 하겠다는 자세를 공유하려 하지 않고서, 회담을 진행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동성명 뒤쪽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많은 대화가 이어졌을 겁니다. 각론에 대한 합의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한홍구 : 그건 1994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카터가, 폭격하기 전에 한 번 만나나 보자. 서방 주요 지도자로서는 처음 김일성 주석을 만난 거죠. 만났더니, 어 대화가 되더라. 이렇게 됐는데, 김 주석이 갑자기 서거하고. 이번에도 대화를 해보니까, 뜻밖에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00년도에는 서로, 북쪽에서 체면이랄까 모양이랄까, 그렇게 시간 끌다가 부시가 당선되는 바람에 클린턴이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디테일의 악마가 문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장용훈 : 그 디테일을 풀기 위해서도 양국 간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공동선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구두로 한 약속이든 이런 것들이 이행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이 북미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눈여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몇월 며칠까지 없애겠다, 이런 걸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실험장, 미사일발사장 폐기 같은 걸 보면, 이런 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주도



한 홍 구

“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지만, 디테일에서 나올 수 있는 악마를, 양국의 정상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상당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김정은, 트럼프 모두 대화와 협상에 사활적 이해를 갖게 된다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좋은 방향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다시 말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그것으로 미국과 신뢰를 쌓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맥락을 봐야지요. 지금 당장 어떤 단정을 내리려고 하는 건, 조금은 뭐랄까,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합니다.

‘디테일의 악마’, 관리 가능하다

한홍구 :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지만, 디테일에서 나올 수 있는 악마를, 양국의 정상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상당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북미관계에서 가장 흉악했던 사건들을 들자면, 푸에블로호 사건도 있고, 또 1968년 EC-121기 사건, 그건 서른한 명이 죽었잖아요? 또 1976년도끼 사건.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정상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일종의 유감을 표시하고, 그러면서 더 큰 위기로 발전하지 않게끔 관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요컨대, 김정은, 트럼프 모두 대화와 협상에 사활적 이해를 갖게 된다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좋은 방향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승환 : 디테일에 악마가 있을 수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북미관계를 보면, 디테일의 악마를 경험할 만큼 논의가 진행된 게 없단 말이지요. 2000년 조명록 방미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곧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평양 방문 등 후속 조치들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디테일의 악마와 관련, 마치 대화에 대단한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디테일이 문제였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디테일 때문에 북미 간에 무엇이 어긋난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장용훈 :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신뢰의 부재 속에서, ‘나는 너 못 믿어, 그래서 너랑 못하겠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테일까지 가본 적이 없죠.

김숙임 : 그런데, 체제보장과 비핵화가 전개되다 보면, 그때는 디테일이 발생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장 기자님 말씀대로 자발적이고,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뢰를 쌓기 위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또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제보장에 대해서, 적어도 비핵화와 같은 정도의 노력을



장 용 훈

균형 있게 해야만, 디테일의 악마를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환 : 김숙임 이사장님 말씀대로, 디테일의 악마는 핵을 가진 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북이 핵을 포기할 때 그 체제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같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지나친 보상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미중관계와 관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구조를 해체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면,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군사적 장치의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장 기자님께서 트럼프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변화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의 변화가 ‘시간 끌기’나 ‘제재 회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는 건지, 점점을 한 번 해주시죠.

김정은의 환경, 김일성-김정일과 달라

장용훈 : 극단적 실용주의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는 지금 이 시점의 북한에서 지도자 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

장이 권력을 이어받고 난 다음에 보여준 일련의 정책을 보면, 선대들이 해왔던 정책과는 분명 차별화된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 핵심은 북한 주민, 인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시장만 하더라도, 김정일 시절에는 불연속성이 보였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시장을 완전히 허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겁니다.

한홍구 : 지도자 변수라는 점에 대해서는, 계승성의 측면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도 극단적 실용주의자였거든요. ‘흑묘백묘론’만 봐도, 그걸 등소평이 주장하기 전에 김 주석이 먼저 말했지요. 밥 먹는데 왼손으로 먹든 오른손으로 먹든, 주체사상 꺼낼 때부터 그랬습니다. 인민의 생활 개선도 ‘이밤에 고깃국’, 이랬잖아요? 다만, 그 실용주의를 펼칠 객관적 환경이 김일성, 김정일 시절에는 갖춰지지 않았지요. 김정은이 선대와 다른 점이라면 해외경험, 저는 그것을 꼽고 싶어요.

장용훈 : 대외정책적 측면에서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정상 회담을 제안했었죠. 그리고 9일 뒤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겠다, 이런 의제를 논의할 북미 군사당국간 회담을 갖자, 이랬습니다. 주민 생활을 개선하려면 대외적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남쪽의 박근혜 정부는 북의 제안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지만, 사실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갈지 결정하는 건 한국정부의 태도에 달린 측면이 있거든요. 한국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북한과 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측면을 종합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굉장히 일관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더 나아진 북한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적, 외교적, 정치적 환경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프레임으로 북을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변화를 가늠하기도, 따라잡기도 어렵습니다.

한홍구 : 김정은의 태도 변화가 가능했던 맥락이, 핵을 점점 더 개발해나가면서 완성도를 높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공포를 느낀 게 북한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아버지 부시가 철수시키기 전에 한반도에 거의 천 발썹

“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고 난 다음에 보여준 일련의 정책을 보면, 선대들이 해왔던 정책과는 분명 차별화된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 핵심은 북한 주민, 인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북이 핵 개발을 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게, 핵을 안 만들어도 되는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체제보장이고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북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북한을 괴뢰라고, 괴뢰라면 소련의 괴뢰인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20년 넘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붕괴를 점쳤는데, 붕괴는커녕 전 세계에서 몇 나라만 가진 ICBM을 만들었고요. 북이 변덕스럽다고 그러는데, 정작 변덕스러운 건 미국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남쪽 내부에서 색안경을 벗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 바로 알기는 이제부터

이승환 : 한 교수님, 장 기자님,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일관된 변화가 진행됐고, 그러면서 평화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이 중요해졌는데, 남쪽에 문재인,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협상 카드를 던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숙임 :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북에 실무회담 하러 갔을 때, 북쪽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군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북이 ‘선군정치’를 그렇게 강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랬던 게 병진노선으로, 이제는 경제를 우선하는 선경노선을 주장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북쪽 역시 뭐랄까, 좀 더 차분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전환적 국면을 열어갑시다!” 또는 “사변적 사태를 만들어갑시다!”, 이런 선언적 언표를 좋아하는데요. 선수들끼리 라면 몰라도, (웃음) 남북의 주민과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는,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서 공감대를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한홍구 : 얼마 전에, 정상회담 관련해서 TV에서 탈북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말씀이 우선, 자기가 북에 있을 때 안 굶었다, 그리고 북에 있을 때는 남쪽 영화, 드라마 다 보았는데 남에 오니까 북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이러세요. 우리 사회가 열려 있는 사회 같지만, 차단된 게 많고, 이렇게 형성된 색



이 승 환

“

북한 바로알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좀 더 실사구시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안경이 두꺼워요. 이승환 회장님과 30년 전, 6월항쟁과 88올림픽 무렵에 열심히 했던 일이 북한바로 알기운동인데, 그때와는 맥락이 다르지만, 이게 더 절실한 현실적 필요가 생겼습니다. 김정일 때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정상회담을 하면 서로 교차방문을 해야 하는데, 2007년에 김정일이 내려온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이 광화문에 와서 손을 흔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김숙임 : 지금 우리 조각보에서 활동하는 탈북자들이 계신데, 판문점선언 때 굉장히 기뻐하고 울고, 그러셨어요. 북이 대등하게 와서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요. 그분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우리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북을 자기 생각보다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라고 TV나 신문들이 요구할 때, 그럴 때 정말 싫다는 것이죠. 탈북자 분들도 다양하고요. 이분들이 판문점회담과 북미회담을 보면서 감동하고, 북에 있는 자기들 고향에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벌써 희망에 가득 차 있어요.

이승환 : 북한 바로알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좀 더 실사구시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마치 김정은의 변호인 역할을 맡고 있는 듯한 상황, 그래서 성조기 들고 한미동맹을 거의 신앙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혼란들이 그

렇습니다. 모두에서, 장 기자님이 지방선거 결과에 이러한 한반도 상황의 변화, 평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얼마나 진행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정치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이 점들을 더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보수 재생은 재벌 손에 달려

한홍구 : 이 변화가 촛불 이후에 온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촛불 이전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 수구세력들이 힘을 지니고 저항을 했을 텐데,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지리멸렬했던 말이죠. 수구세력들이 재생할 수 있는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홍준표 식으로 완전히 옛날 프레임에만 의존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미국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중앙일보 같은 데서도, 저건 보수가 아니라 수구꼴통이다, 이런 칼럼이 나오는 형국이에요.

장용훈 : 제가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봤는데, 이번의 경우,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김성태 의원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삼십대입니다.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어서 아르바이트 전전하다가, 포크레인 기사인 아버지의 권유로 자격증을 딴 거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할 거고, 그럼 나는 거기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자. 이랬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걸 가로막으니까, 너 뭐 하는 놈이야 하고 때린 거거든요. 남북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 홍 구

“

이 한국형 수구는 전 세계에서 대단히 독특한,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말이죠. 어느 나라나 보수세력이 민족을 내세우는데, 여기는 동맹을 내세웁니다. 이 수구세력은 개혁이고 뭐고 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빈자리를 누가 빨리 메울 것이냐, 아마 재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 대중들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절박하게 받아들인 것 아닌가 싶어요. 그때 김성태 의원은 자기들 노선을 다시 돌아봤어야 했는데, 병원으로 간 거죠.

한홍구 : 이 한국형 수구는 전 세계에서 대단히 독특한,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말이죠. 어느 나라나 보수세력이 민족을 내세우는데, 여기는 동맹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성조기 흔들다가 성조기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수구세력은 개혁이고 뭐고 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빈자리를 누가 빨리 메울 것이냐, 아마 재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롭게 열리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빨리 북한에 진출하려 할 것이고, 그런 대북 진출 경쟁 속에서 ‘친북재벌’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북에 대한 태도를 바꾼 새로운 보수세력이 남쪽에 자리 잡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다음 총선 이전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시간문제이고, 보수가 재편되는 시대가 옵니다.

장용훈 : 요즘처럼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북진출 관련 TF를 만드는 걸, 2000년 그 언저리에는 못 봤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업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이윤을 획득할 창구를 만드는 게 더 이상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 우리가 북한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 쪽이나 젊은 사람들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수구세력들은 북한과 뭘 하면 퍼주기다, 끌려가는 거다,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홍구 : 한국의 수구세력은, 자신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남북대결에 의존해서 먹고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고, 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만이 보수를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진짜 불가역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한반도 주민이다

장용훈 : 최근에,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면, 저는 대한민국 수구가 이렇게 몰락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2년 뒤 총선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저 멤버로 뭐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석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파도가 밀려올 때는 올라타야지 맞서려 해서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보수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저 사람들이 이 변화의 모드에 올라타서 재생할 수 있을까요?

이승환 : 탈냉전이 시작되고,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냉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한홍구 : 수구세력은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로소 한국사회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수많은 나라에서, 어찌 되었든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국가건설을 이끌었는데, 예외가 대한민국과 남베트남이고, 유일하게 우리만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프레임에 노출된 채 살아왔으니, 새로운 환경에 기성세대도, 민주화운동 했던 세대도, 젊은 세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김숙임 : 이 시점에서 촛불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수십년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해왔지만, 정말 그렇게 대중의 지지를 받고 전폭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은 촛불 아니겠습니까?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까요. 이걸 역사학자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몫이죠. 한반도 운명의 주인과 당사자는 바로 한반도 주민이다. 주권이 누구의 것인가를 촛불이 웅변했다면, 저는 이 힘으로 평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홍구 :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지난 몇 백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다시 살아난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수구세력은 몰락이 불가피합니다. 이 변화의 조정기에, 과거의 프레임에 속박됐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들이 잘못됐었구나, 색안경도 벗고, 마음도 비우고, 머리도 비우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숙임 :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협상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하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 하는데, 남과 북, 주변의 중, 러, 일 등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물론 진보, 보수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냉전의 섬이었던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주민, 시민, 인민의 이니셔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 자유롭게 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 숙 임

평화체제, 지역다자안보로 굳혀야

이승환 : 시야를 조금 넓혀보죠. 중국의 선택과 미중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홍구 : 냉전의 섬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주변을 모르는 거 같아요. 우리 역사도, 북쪽도 잘 모르고, 미국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게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학과 면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고 물으면, 열에 일고여덟은 더럽고 못 산다고 그래요. 중국으로 밥 벌어먹겠다고 중국학과 지망한 애들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국을 깔보았던 일본제국주의가 남긴 유산입니다. 수천년 동안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지난 150년 동안 굴욕을 당하다가, 이제 놀라게 성장한 지 20년이 채 안 되었어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

오랫동안 냉전의 섬이었던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주민, 시민, 인민의 이니셔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 자유롭게 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이승환 : 중국 문제는 두 측면에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상태에서 한반도 탈냉전이 진행된다면, 주한미군은 역내 신속기동군으로서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어 남중국해에 개입하게 된다는지, 이러면서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최 일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장래와 관련,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명백히 북한의 베트남화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지만, 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보다는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오히려 더 가까운 스탠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 기대하는 게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복잡성은 전혀 새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홍구 : 주한미군의 존재를 남북관계 속에서만 파악했는데, 이제는 동아시아 전체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특수한 관계, 한미관계가 혈맹이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혈맹이지요. 이런 북한이 왜 지금의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평화체제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북한 입장에서선 길게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이승환 :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중국 방문에 미국은 혼쾌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신중국몽’을 내세우는 시진핑과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사이에, 지금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이런 갈등에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딱히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장용훈 : 일단,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더 첨예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4자 간의 회담을 더 넓히고 키워서, 공동의 이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안보 구조를 짜야 하지 않을까요. 이 구조에 일본과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겠고요. 안보라는 게 군사적인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새 인간안보라는 개념도 나오더군요. 역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서 지역안보로 나아간다면,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상황 변화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숙임 : 제 기억에 따르면, 인간안보가 1995년인가, 사회개발 UN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NGO들은 일관되게 지역다자안보를 말했어요. 지금 아주 좋은 적기라고 봅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무난하다면, 또 문재인 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신남방 정책을 강조하잖아요? 길게 보고 지역안보 틀을 짜는 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정시키는 길이지 않을까요?

거대담론을 넘어 일상을 준비하자

이승환 :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남북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 협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내에서 공동안보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미중관계를 포함한 국제질서 개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좌담의 주제가 워낙에 크고 광범위해서 걱정이 조금 됐는데, 세 분이 워낙에 오늘 이슈에 정통하신 분들이라 좌담이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웃음)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한홍구 : 저는 일본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했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돌이키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외교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일수교 협상은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남북이 공조를 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의 민족사적 반성이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위안부 문제 꺼내지도 못했고, 원폭 피해도 빠뜨렸는데, 북은 제대로 해서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는 일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학계나 시민단체들이 남북교류 할 때, 일본 변수를 다룰 현실적인 전략으로서 준비를 서두르면 좋겠습니다.

김숙임 : 저는 시민단체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 입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촛불 이야기도 했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때 민중 주도의 정신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립니다.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인 한반도 주민이 묻고, 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거대담론은 필요한 것이지만, 일상의 준비가 충분조건입니다. 색안경 벗기, 편견 깨기, 이런 게 모두 일상의 평화교육이잖아요? 다양한 입장

과 내용이 근본적인 질문과 공존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장용훈 : 저도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북한을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저도 언론인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유통되었습니다. 북한이 악마적 이미지를 뒤집어쓴 것이죠. 제가 지난번 어떤 은행의 북한 금융시스템 연구보고서를 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수준이라면, 북미관계가 풀리고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라는 시장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할 때 우리 기업들이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북한 바로 알기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언론인으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환 : 오늘 긴 시간 좌담 요청에 응낙해주시고, 풍성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용 훈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유통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북미관계가 풀리고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라는 시장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할 때 우리 기업들이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범진 · 이위종열사기념관 개관을 알립니다



이 원 갑
이범진 · 이위종열사기념사업회 회장

저의 증조부님이신 이범진 열사와 작은 할아버님이신 이위종 지사님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기념관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변에서 조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열사님의 후손들이 간절하게 소원하던 기념관이 이제야 조그마한 건물을 신축하고 기념사업회 간판을 걸고 사무실과 건물 계단복도에 사진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 재산을 바치시고 순국하신 후, 유족들의 삶은 지금까지 극심한 가난을 감수하며 살아왔기에 기념사업은 엄두도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게 된 저에게 늦게나마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범진 열사의 유해와 이위종 지사의 유해는 아직까지도 고국에 모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두 분의 유해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 정부와 친일파들은 대한제국의 정권을 손에 쥐고 행패를 부리면서 이범진 러시아공사를 소환하고 공사관을 폐쇄할 것을 강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님은 이에 불응하고 5년 이상을 자비로 공사관 운영을 하면서 고종황제와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구국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만국평화회의에 작은아들 이위종과 이준, 이상설을 파견하여 이위종 지사의 유창한 영어와 불어 연설로 일본 정부의 만행을 세계만방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합방이 조국을 삼켜버렸고, 이로 인한 절망은 많은 애국지사들이 항거하는 순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범진 공사도 1911년 1월 러시아공사관에서 고종황제께 고별의 유서를 드리고 십여 년간 못 만난 가족들에게 한통의 유서를 보내면서 순국의 길을 택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국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외경들에 의해 전 재산을 몰수당 하였고, 이 공사의 장남은 온갖 고문을 받고 정신이상자로 길거리에서 횡사하는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도 그 당시에 태어나셔서 온 가족이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와 같은 생활로 유년생활을 지내셨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조국광복 후 많은 애국지사와 열사들의 유해가 환국하였지만 두 분의 유해는 찾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국립묘지에 모시지 못한 통한을 안고 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범진 열사가 묻히셨던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공동묘역을 찾게 되었지만 정확한 묘지는 찾지 못하여 공동묘지 입구에 순국비를 세웠습니다.

이위종 지사는 부친이 순국 자결하시고 공사관이 폐쇄된 후 혈혈단신 러시아에 머물면서 조국광복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투쟁을 하였고, 광복을 보시지 못하신 채 지금까지 생사의 장소와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손들이 두 분을 위한 기념사업회를 출범한 지 이십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조촐하게 사무실과 사진전시관을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두 분의 약력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이범진 열사 약력

- * 이경하(어영대장, 포도대장 역임)의 차남으로 출생
- * 이조참판, 형조참판
- * 법무대신
- * 주미공사
- * 주프랑스 겸 오스트리아 · 독일 · 아라사공사
- * 주아라사(러시아)공사
- * 헤이그특사 특파 주역
- * 독립운동단체 동우회 결성, 연해주 해동학교 · 세동학교 건립, 해조신문 발행 지원
- * 을사늑약 이후 약 5년 간 자비로 공사관 운영
- * 1911년 한일합방 항거 순국 자결
- * 2002년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 공원묘지 입구에 순국비 제막
- * 건국공로훈장 애국장



이위종 지사 약력

- * 이범진 열사의 차남으로 출생
- *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졸업
- * 주불공사 서기
- * 주아라사(러시아)공사관 참사관
- * 헤이그특사
- * 독립운동단체 동우회 회장
- * 부친 이범진 공사 순국 자결 후 모스크바, 페테르스부르크, 연해주 지역과 만주 전 지역에서 독립운동 맹활약 중 행방불명.
- * 건국공로훈장 독립장
- *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김종필 전 총리가 서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죽은 사람은 원수가 없다고들 해 왔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그가 어떠한 일을 했든 원수 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를 비난의 표적으로 만들 생각 역시 추호도 없다. 아울러 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그의 명복을 비는 것과 그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일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김종필 전 총리는 5·16군사쿠데타의 주역 중의 주역으로서, 우리 헌정사를 유린하고 왜곡한 인물 중 박정희 전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어디 그뿐인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공작정치를 한국 정치에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다. 그가 만든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으며, 우리 정치를 공포와 협잡으로 얼룩지게 했는지는 굳이 긴 이야기가 필요 없으리라. 또한 그는 3당야합을 통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고착시킨 주역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그는 한일협정을 굴욕적이고도 졸속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강제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이다. 그 스스로 제2의 이완용이 되겠다고 하였듯이 그의 이러한 행위가 한일 관계를 왜곡시키고,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사의 질곡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런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으킨 5·16쿠데타가 산업화에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가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많지만, 설사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말한 과오를 지울 수는 결코 없는 일이고, 지워어도 안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의 간절한 염원 속에 탄생하였고, 그 뒤 획기적인 남북평화의 디딤돌을 놓은 정부이다. 나아가서 3·1운동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나갈 정부이다. 그런 정부에서 김종필 전 총리와 같은 사람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산의 지하실에서 고문당하고, 영문도 모르게 죽어갔던 혹은 불구가 되었던 사람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잊었는가? 온갖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민족정기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순국선열들, 독립투사들의 외침을, 영문도 모르고 이역만리에 끌려가서 젊은 날을 희생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멸시의 망언만 이민족으로부터 들어야 했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되었던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잊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에 김종필 전 총리가 큰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한 터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화해'라는 형식적 명분 하에 천박한 정치적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가 어설픈 정치논리로 훈장을 배분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정치적 논리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민족정기를 훼손하여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했던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김종필 전 총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일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련된 일이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내일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일이다. 이번 훈장 수여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에 면죄부를 준 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직 총리에게 수여했던 관례 때문에 추서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는 과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두렵고 두려운 일이다. 수단과 방법이 목적에 우선하고, 현실에서 출세한 자는 모든 과오가 덮여질 수 있다는 그러한 퇴행의 논리가 촛불혁명의 결과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양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칫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시 과거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문재인 정부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5일
주권자전국회의

임시정부 설계자 조소앙 선생님께



김 삼 웅
현대사 연구가, <조소앙 평전> 저자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걸출한 인물이 많습니다. 민족수난기에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입니다. 애국지사 중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조소앙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업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들면 지난해 100주년을 맞은 <대동단결선언>과, 우리나라 3대 독립선언서의 하나로 꼽히는 1919년의 <대한독립선언> 기초, 상하이 임시정부수립 당시 ‘대한민국’ 국호 제안,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헌법)> 기초, 임시정부 의정원의원·국무위원·외교위원장, 삼균주의사상가, 대일선전포고문 작성, 대한민국건국강령 작성 등이 꼽힙니다.

선생님은 독립운동사는 물론 민족사에 불멸의 문헌으로 남은 주요한 각종 ‘선언문’을 작성하고, 풍찬노숙의 독립운동가로서 생애를 바쳐 삼균주의사상을 연구하고, 그 결과 삼균주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좌우 독립운동 진영의 이념적 기

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무장투쟁 단체인 대한독립의군부의 부주석을 역임하는 등 결코 문약하지 않은 상무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하였지요.

해방 후에는 삼균주의에 바탕을 두고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에 참여하고, 피랍되어서는 북한에서 중립화통일론을 제기하였지만, 남북 양쪽에 포진한 외세와 분단세력, 권력지상주의자들에게 선생님의 사상은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반 민족의 수난기에 사상이 조소앙 선생이 아니었다면 우리 독립운동사는 매우 건조했을 것입니다. 과문의 탓인지 모르지만, 세계 피식민지 해방운동사에서 우리 임시정부처럼 일관되게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광복운동을 전개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 중심에 선생님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사상가로서만 아니라 정치가·외교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열강의 한국에 대한 ‘위임통치’에 반대 이론을 전개하면서 대응해 나간 활동을 보면 선생님의 활동과 역량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가정이지만, 임시정부가 개인 자격이 아니고 정부 자격으로 환국하여 국민의 지지 속에서 해방정국의 통치기관이 되고, 삼균주의가 새나라 정부의 국책으로 채택되었다면 한국의 방향은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정부 수립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 일반의 여망대로 이승만이 초대 국무총리에 조소앙 선생님을 지명했더라면 6·25전쟁을 막거나, 민족주의자와 중도파 인사들의 대량 납북 또는 월북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이승만의 독선과 독재는 크게 억제되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가정에 상도할 때 조소앙 선생님의 존재감은 더욱 돋보입니다.

조소앙 선생님은 해방 후 삼균주의학생동맹을 창설하면서 “삼균주의야말로 모든 인민이 골고루 배우고 골고루 살고 골고루 먹는 유기철학에 의한 절대진리”라고 선언 하였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균등사상을 풀어 설명한 것이지요. 민족자결의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정치이념을 ‘균등’이란 단어만을 떼어내 사회주의, 회색주의자로 매도하는 식자들도 있었지요. 그 무지함과 험량함이 민망할 지경입니다.

선생님의 균등주의는 소비에트나 북한식의 ‘균등’이 아닌 독립국가, 민주정부의 전제로 가능한 정책이고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로서의 균등’이 아니라 ‘수단가지로서의 균등’이지요. 출발점이 다른 달리기 경주가 불공정하고 결과가

뻔하듯이, 수단이 균등하지 못하면 목표가 균등할 리 만무하지요. 예컨대 교육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력·경제력의 균등이 불가능한 이치와 마찬가지로 맴입니다. 권력층이나 재벌가 자녀와 빈곤층 자녀의 교육의 기회가 같지 않듯이 말입니다.

저는 2006년 7월 평양 소재 애국열사릉의 선생님 묘소 앞에서,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사회계약론>으로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된 루소가 되었을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미국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퍼슨이 되었을 것이고,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민족주의·민권주의·민생주의의 삼민주의를 내건 국부 손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학식과 경륜을 살리지 못한 민족사의 불운 앞에 한동안 발길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남북관계가 풀리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묘소라도 찾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다양한 외래문화와 외래사상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민족적 정통성 속에 융해시키고, 인류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통합하여 한민족의 독자적이고도 진보적인 삼균주의 사회이론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사상가이고, 해방정국에서 최후의 경륜가였습니다. 175센티의 키에 70킬로가 넘는 (해방 후) 건장한 체구만큼 순금과도 같은 무게의 함량을 지닌 사상가이자 경세가였지요. 20세기 한 시대를 통틀어 한국에서 선생님만큼 폭넓은 식견과 정책과 경륜 그리고 투지를 지닌 인물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현행 헌법에는 선생님이 기초하여 1944년 4월 22일 임시정부의 <헌장>으로 채택된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장의 총강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조항은 그대로이고 권리와 의무, 평등권 등에서 유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에 ‘삼균주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할 수는 어렵겠지만, 다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경제·교육 균등의 기본정신은 반드시 살려 나갔으면 싶습니다. 빈부격차·양극화의 ‘99대1’의 현상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갈수록 폭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 한 울타리에서 ‘양과 호랑이의 자유경쟁’으로 표상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은 헌법정신과도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국정농단과 부패로 수감된 이명박이 박근혜 정부는 ‘규제철폐’라는 구실 아래 호랑이를 가두었던

울타리의 말뚝을 많이 뽑아냈지요.

지금 한국사회는 상위소득 1%가 국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소득불균형의 위험사회가 되었습니다. 위가 지나치게 무겁고 아래가 가벼우면 침몰하는 것은 세월호뿐만 아니지요. 그래서 더욱 선생님의 삼균주의 철학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선생님의 어록비에는 “삼균주의-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 평등으로 민주국가 건설하자”는 내용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상을 집약한 것이지요.

해방 후 선생님이 정치현장에 뛰어들면서 사회당을 창당할 때의 비화가 전합니다. 다수의 간부들이 ‘한국사회당’이란 당명을 주장하자, 선생님께서는 ‘사회당’이라 해야 한다는 설명에서, 다시 한 번 국제주의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삼균주의를 실천해 나가려는 마당에서 이를 굳이 한국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 이는 사람 대 사람,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평등한 관계회복을 통해 세계 일가를 이룩하자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굳이 ‘사회’ 자(字) 위애다 ‘한국’을 붙여 지역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사상체계는 민족주의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지만, 안으로는 봉건적·신민적(臣民的) 굴종의식을 청산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침략주의를 분쇄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 3균에 기본하는 고루 잘사는 민주공화국가를 세우려는 국제주의의 보편적 철학사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고유사상과 중국의 노장사상, 영국노동당의 정책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고드윈·푸르동 등 아나키즘까지 수용하는 거대한 이념의 용광로였지요. 그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정제된 것이 3균주의 사상이고 실천논리가, 좌우합작·남북협상·통일정부 수립·중립화통일론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철학과 정책은 우리의 ‘지나간 미래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 경륜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살아있는 겨레의 사표이십니다. 

돌아오지 못한 순국 영령과 산 자들의 책무



이 만 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하북성 호가장에서 순국한 네 분(박철동·손일봉·이정순·최철호)은 모두 20대로 고향에서 맞을 후손도 없어 이곳 마을에서 청명 때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동행했던 학생들과 이들의 산소에 별초할 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들에게 조국 있음이 무슨 소용이라! 나라가 있다면 의당 이들부터 챙겨 그들에게 진 빛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6월은 추모보은의 달이다.

몇 해 전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정신> 답사단과 함께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

와시 근교에 있는 윤봉길 의사 암장지를 둘러보고 마음이 많이 상했다. 상해에서 거의(擧義)한 윤 의사가 왜 이곳까지 와서 쓰레기 더미 속에 암장되었는가.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 의거 때 단상의 시라카와 총사령관과 노무라 해군함대사령관, 우에다 육군 제9사단장, 시게미쓰 주중일본공사 등이 사상을 입었다. 윤 의사는 5월 25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형 집행이 미뤄졌다. 상해에 파견된 일본 육군 9사단 본부가 있는 가나자와로 옮겨 사형하겠다

는 것이다.

윤 의사는 11월 18일 오사카로 호송돼 육군위수형무소에 한달간 수감되었다가, 12월 18일 오사카를 출발해 가나자와의 위수구금소로 이감돼 하룻저녁을 지내고 그 이튿날 미쓰코지 산속 ‘육군공병작업장’에서 아침 7시 40분에 사형되었다. 10m나 높은 언덕에 거적을 깔고 십자가 형틀에 두 팔을 얹어매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두 명의 사수가 집행했다. 답사단 일행이 찾은 윤 의사의 암장지는 노다산의 육군묘지 관리사무소 옆 쓰레기장으로, 순국한 곳에서는 약 3km 떨어진 곳이다.

1946년 3월 유해봉환단이 일본에 도착해 서상한·박열·이강훈의 도움을 받아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세 의사의 유해 발굴에 나섰다. 이들은 일본인 담당자들에게 유해 발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근처의 무덤들을 다 파헤쳐 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세 의사의 유해를 나가사키, 도쿄, 가나자와에서 발굴한 후 도쿄로 모셔와 수백명의 교민들이 일본 왕궁 앞에서 만세를 불러 시위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대한해협을 건넌 뒤 ‘삼열사불안위원회’ 김구 위원장과 유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6월 16일 부산을 출발해 상경하는데, “차가 이르는 정거장마다 거룩한 유골을 배례하고자 경건한 가운데에도 진정 못

해 감격에 호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앞서 4월 29일에는 공산당(박헌영)을 포함한 국내의 각 정당 거두와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윤 의사의 ‘영웅적 거의 기념대회’를 치렀다. 삼의사의 유해는 7월 6일 성대한 국민장으로 효창원에 모셨다.

글 처음에 삼의사의 유해 봉환을 소개한 것은 해방 직후 귀국한 백범과 독립운동가들이 순국선열들의 봉환에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해방이 되자 그들은 자신들만 살아 돌아온 것이 죄스러웠는지, 먼저 순국한 동지들의 유해를 방문했고, 유해 봉환은 산 자들의 최소한의 의무로 생각했다. 국립묘지를 조성하기에 앞서 효창원이 순국열사들의 묘원으로 조성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노력한 백범이었던 만큼 효창원 삼의사 묘원 옆에 안중근 의사의 허묘를 만들었고, 1948년 4월 남북협상 때에는 4김 회담 중 안중근 의사의 유해 봉환 문제도 제기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중공을 지원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1949년)되자 중공은 실전을 쌓았던 2개 사단 규모의 조선족 군대를 북한에 넘겨주어 6·25 때 남침의 주력부대가 되었다. 또 중공이 1960년대 중국 동삼성 지역의 유적을 발굴할 때, 총리 저우언라이는 고대 유물은

‘조선’에 넘겨주도록 지시했을 정도로 양국관계는 돈독했다. 이런 관계로 보아 북한이 당시 뜻만 있었다면 여순감옥 근처에 매장되었을 안 의사의 유해는 쉽게 발굴·봉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 의사의 유해 봉환 문제는 그 뒤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안 의사가 황해도 해주 출신이어서 그의 유해 발굴은 북한과도 관계가 있었다. 북한은 그 연고권을 내세워 남쪽의 단독 유해 발굴에 반대했다. 남북한은 2005년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안 의사 유해 발굴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여순감옥 일대를 조사하여 그 서쪽 원보산 지역을 발굴 대상으로 지목했다. 2008년 3~4월 이 지역을 29일간 공동발굴했으나, 유해는 발굴되지 않았다.

2010년 순국 10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유해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지 관련 자료 조사 및 매장 추정지역 현지조사 등을 하면서 리커창 총리 등 중국 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안 의사 유해 발굴은 남북한과 중국, 무엇보다 당시 기록을 남겼을 일본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6월은 추모보은의 달이다. 현충일(6월 6일)과 6·25는 이 뜻을 더욱 간절하게 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여서 조심스럽지만,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에서는 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였음에도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의 유해 송환을 합의서 제4항에 넣었고 곧 유해 송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6·25 때의 유해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중국에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유해가 제대로 발굴, 봉환되지 않는 한 전후 처리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종전이라 하더라도 전사자 유족들의 상처는 다 씻기지 않는다. 조국을 지키려고 했던, 우의나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전사자는 가족과 나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산언덕에 조성된 하와이 국립묘지든, 아늑한 동작동 묘지든 유해는 조국과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게 해야 한다. 이것이 추모보은의 출발이다.

그동안 정부도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여 선열들의 공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애써왔다. 백범이 1946년 삼의사를 봉안하여 민간 차원의 길을 연 데 이어, 정부는 1975년경 장인환 의사의 유해 봉환에서 시작하여 40여년 동안 계속하여 국외 각지에서 총 134위의 독립유공자를 국립묘지 등으로 봉환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추진한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독립운동 국외사적지를 돌아보면 아직도 더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 길림성 화룡현 소재 대중교 삼중사(나철·김교현·서일)의 묘역이 있는데, 가서 볼 때마다 보존 상태가 퇴색하고 있다. 현지에 유해를 모시는 것도 좋지만 생전에 국외에서 풍찬노숙했던 어른들은 조국의 산하에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후세가 덜 부끄러울 것이다.

하북성 태항산 지역은 조선의용대 활동 지역. 윤세주·진광화 열사의 무덤은 중국 당국이 열심히 돌보고 있다. 그러나 하북성 호가장에서 순국한 네 분(박철동·손일봉·이정순·최철호)은 모두 20대로 고향에서 맛을 후손도 없어 이곳 마을에서 청명 때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동행했던 학생들과 이들의 산소에 벌초할 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들에게 조국 있음이 무슨 소용이라! 나라가 있다면 의당 이들부터 챙겨 그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상해 송경령능원(外籍人墓園) 안 동농 김가진의 묘소는 이제 그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후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일제는 ‘한일합병’ 때 한말 고관이었던 그에게 작위를 수여했다. 그러나 그는 대동단 총재 신분으로 임시정부에 망명하여 순국했고 임정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전과(前過) 후공(後功)의 경우 포상하는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그는 유

공자로 포상되어야 하지만 아직 서훈도 유해 봉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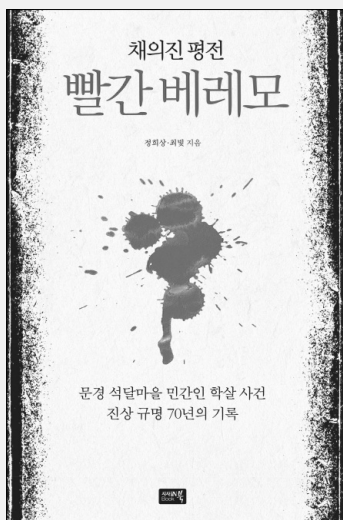
추모보은의 달을 맞아 생각해 할 것이 있다. 남북 인사들의 유해 문제다. ‘판문점선언’에 기초하여 먼저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유족의 성묘를 허용하든가, 이들의 유해를 유족의 품에 안겨주든지 해야 한다. 또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허용될 경우 맨 먼저 6·25 때 희생된 젊은이들의 유해를 국적 가리지 않고 수습해야 한다. 연고를 알 수 없는 유해들은 무명용사탑이라도 만들어 그들의 혼백을 마땅히 위로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 해원(解冤),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 이게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후예들이 갖춰야 할 예의가 아니겠나. 

※ 위 글은 한겨레신문(2017.6.21)에 게재된 기사를 필자의 동의하에 전재한 글입니다.



채의진 평전 <빨간 베레모>

- 지은이 | 정희상 · 최빛
- 쪽수 | 312쪽
- 출판사 | 참언론 시사인북



문경 석달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 70년의 기록
국가폭력에 맞서 싸운 한국판 체 게바라

‘부수적 피해’.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비무장 민간인이 당하는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뜻하는 군사용어이다. 군은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면하려고 이처럼 ‘사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다. 동족 간의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부수적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 중 하나이다. 광복 직후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기도 전에 이미 민간인들은 지옥을 보고 있었다.

1949년 12월 24일 경북지역의 공비를 토벌하던 국군 부대가 문경 석달마을 24가구 주민 127명 중 86명을 마치 사냥하듯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인솔자가 상황을 오판한 데 이어 경찰만 하고 오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면서 빚어진 비극이었다. 이날 확인 사살을 면하고, 형님의 시신 밑에 깔렸던 채의진 소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줄지에 가족 9명을 잃고 고아가 되다시피 한 채의진의 앞날은 이날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을 국가 폭력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전사로서의 운명을 타고난 셈이다.

역대 정권은 다른 술한 국가폭력 사건과 함께 이 사건 역시 덮어 버렸다. 유족의 끈질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무시하고 공비가 저지른 일로 조작했다. 중교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당국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채의진은 퇴직 후에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널리 알리는 일에 매달렸다.

그는 1980년대 말 영문으로 석달마을 학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학살 사건이 해결되는 날까지 머리와 수염을 자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이후 허리까지 늘어뜨린 긴 머리, 덩수룩한 흰 수염에 붉은 베레모를 쓴 그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현장이라면 어느 곳이나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 폭력에 맞서 싸우는 한국판 체 게바라의 탄생이었다.

그는 투쟁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술한 민간인 학살이 결국 개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모든 시민이 맞서 싸우고 극복해야 할, 국가라는 거대 조직이 빠지기 쉬운 거짓과 위선에 대항해 싸우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우리가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역이라고 이해했다. 그는 전국 유족회를 묶어 범국민위원회를 만드는 산파역을 자임했고, 과거사 정리 기본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믿기 힘들 정도로 그는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않고 일에 매달렸다.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할 때마다, 그는 “나는 쓰러지고 싶어도 못 쓰러진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저승 근처에는 얼씬하지도 말라고 하신다”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강인하던 그도 2016년 여름 결국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이 책 <빨간 베레모>는 어린 시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가 평생을 인권을 위해 싸운 과정을 그려냈다. 스물여섯 새내기 기자 시절 그를 만나 27년간 기자와 취재원이라기보다는 동지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시사IN> 정희상 탐사전문기자가 글을 썼다. 두 사람은 2016년 진실의힘인권재단이 수여하는 제6회 인권상을 공동수상 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이 땅의 억울한 죽음을 집요하게 추적해온 정희상 기자가 지칠 줄 몰랐던 인권 투사이자 오래된 친구를 위해 쓰아 올린 엄숙한 예포이다. 국가가 인권을 얼마나 유린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힘없는 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국가란 괴물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생생하게 기록한 대한민국 인권투쟁사이기도 하다.

그의 죽음 앞에 세상은 조용했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삶이 어제의 그것보다 조금은 나아졌다면, 그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우리의 안녕은 그와 같이 이름 없는 이들이 싸워준 덕분에 누리게 된 ‘부수적 이득’이다.



김구 선생이 얘기한 깨어 있는 시민

- 지은이 | 박성순 • 쪽수 | 160쪽
- 출판사 | 백두문화재연구원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상해임시정부의 주역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뜻 깊은 책.

가혹했던 시대와의 투쟁에서 인류의 미래를 꿰뚫어 본 선각자, 김구가 꿈꾼 이상적인 나라. 촛불혁명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깨어있는 시민'에 대해서 저자는 김구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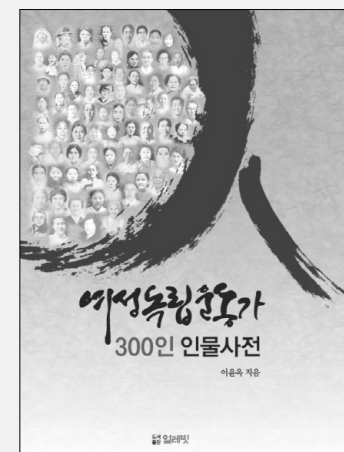
생의 사상을 빌려 말하고 있다.

특정한 일부 인사들이 지배하는 계급독재의 나라가 아닌, 초인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높은 수준의 문화국가이자,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가 김구 선생이 꿈꾼 이상적인 나라였다고 말한다. 또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즉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거들고 나서서 이룩해야 한다고 담담하나 힘 있게 말한다. 더 나아가 인류애적 소망도 품었던 선각자가 김구 선생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휴전으로 갈라졌던 남과 북이 종전을 넘어 평화를 다짐하며 공존의 길을 가게 되었다. 평생소원은 독립임을 다짐했던 김구 선생의 꿈이 현대를 사는 국민에게는 통일로 발현되고 있는 시점에 이 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

- 지은이 | 이윤옥 • 쪽수 | 360쪽 • 출판사 | 열레빗



진작 나왔어야 할 책이 3·1운동 100돌을 한 해 앞둔 지금에서야 우리 앞에 나타났다.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이 그 책이다. 2018년 2월 1일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여성독립운동가로 인정하여 서훈을 한 사람은 유관순 열사를 포함하여 모두 299분이다. 여기에 아직 서훈을 받지 못했지만 <아직도 내겐 시간도 바람소리가>라는 책을 통해 뗏속까지 독립운동으로 날을 새웠던 허은 여사를 넣어 이 책은 모두 300분의 '독립운

동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이윤옥 시인이 지난 10여 년간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추적하면서 펴낸 <서간도에 들꽃 피다>(전8권)을 토대로 “일제 침략의 쓰라린 역사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여성들의 발자취를 1권의 책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간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김마리아, 윤희순, 남자현 등 몇몇 여성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책은 나왔으나, 이처럼 여성독립운동가 300분에 대한 해적이를 기록한 책은 광복 73돌, 3·1운동 99돌 만에야 처음 선을 보인다.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은 300분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출신지, 가족관계, 생몰연월일, 국가유공자 훈격과 활약상 등을 간략하면서도 함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 등에서 독립운동가를 소개할 때 쓰는 “피체되다,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독립사상을 고취하다”와 같은 어려운 말투에서 벗어나 “잡히다, 만세 부르다, 드높이다”와 같은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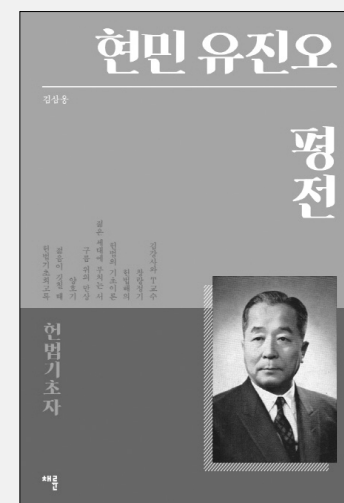
누구나 읽기 쉽게 쓴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에서 활약한 김덕세 지사(2014, 대통령표창)처럼 부부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남편 김형순의 서훈 사실(2011, 애국장)을 밝혀놓았으며, 자매독립운동가인 윤천녀 지사(1990, 애족장)의 경우도 윤선녀 지사(1990, 애족장)가 동생임을 소개하는 등 기존의 독립운동가 기록에서 아쉬웠던 서훈 받은 가족관계를 보완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한 가족의 독립운동사를 한꺼번에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부록에는 300분의 태어나고 숨진 날, 서훈일, 서훈의 훈격, 독립운동계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국의 여성독립운동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해놓았다. 처음으로 펴낸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은 일제 침략기에 불굴의 여성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숨져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금자탑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민 유진오 평전

• 지은이 | 김삼웅 • 쪽수 | 236쪽 • 출판사 | 채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광장의 시민들이 적폐세력을 향해
부르짖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유진오의 큰 업적은 바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엄청난 메시지가 담긴 헌법을 기초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 헌법 제정을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과도적 헌법안이 나왔다. 유진오는 당시 ‘조선 유일의 헌법학자’ 신분이었기에 해방정국 3대 주도세력으로부터 각각 헌법 초안을 의뢰받는다.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앞선 과도적 헌법안 외에 세계 주요 각국의 헌법전과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참고하여 여러 날 고심한 끝에 헌법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있지만 대부분 유진오의 초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즉, 유진오가 작성한 헌법 초안은 그만큼 상당히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안이었다는 말이다. 헌법 제정이 개인의 공적일 수는 없지만, 해방 후 황무지 같던 상황에서 이런 헌법안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빼어난 헌법학자였던 유진오의 공이 크다.

게다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어 신생정부의 각종 법률안과 조약안을 만든 그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라 단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로 하지만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였던 지식인

그의 공로는 정부 수립 초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려운 시기에 야당을 이끌며 치열하게 3선개헌 반대투쟁을 벌였고, 총장 재직 시절 고려대학교를 발전시켜 명문으로 만든 것도 유진오였다.

그럼에도 그의 생애 한편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운다.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5·16쿠데타 이후 맡았던 국가재건국민운동 본부장의 직위, 전두환 정권하에서 지낸 국정자문위원 및 국토통일위원 자리 등등. 그때그때 시류에 맞추어 처신해 왔기에 그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이다. 고려대학교를 가장 크게 발전시킨 그였지만, 오죽하면 사후 빈소를 학교 내에 마련하지 못하게 한 ‘유진오 빈소 시위 사건’이 일어났을까?

유진오의 일생에서 특히 부끄러운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친일단체의 간부직을 지내며 각종 강연과 친일작품 등으로 일제의 식민정책을 옹호·지지하고 침략전쟁을 미화·찬양했다. 훗날 그는 일제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고자 무단으로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직접 나섰던 각종 강연이나 기고, 좌담 등의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유진오’를 검색해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는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천재적인 지식인 중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상당수이다. 식민 지배하에 있었다는 시대의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대에도 변절하지 않았던 훌륭한 지사들이 많기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지식인의 경우 어려운 상황(처지)에서도 참과 정의, 민족과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면, 이것이 필부초동과 지식인의 처신이 달라야 하는 이유라고 저자는 외친다.

시대정신이 결여된 지식인 유진오의 삶은 어떤 교훈을 남기는가?

이런 관점에서 유진오의 삶 역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런 천재가 조금 더 역사의식이 뚜렷했다면 현대사가 다른 판으로 짜일 수 있지 않았을까?

1906년에 태어나 1987년에 사망한 유진오의 일생은 아주 거친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삶은 아주 무탄하기만 했다. 우수한 두뇌와 타고난 재능으로 문학인, 법학자, 관리, 대학인, 교육자, 정치인, 저술가의 분야에서 그는 모두 일가를 이루고, 더러는 명성과 권위를 얻었으며, 역사의 한 자락에 남는 삶을 살았다. 일제에 저항하지 않았고 이승만과는 맞서지 않았다. 박정희의 3선개헌 장기집권 때는 업히다시피 제1야당 신민당 총재가 되어 개헌반대투쟁에 앞장섰으나 전두환 정권에는 한쪽 다리를 얹었다.

분명 유진오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그럼에도 그에게 찍힌 ‘권력의 부역자’라는 낙인은 지식인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시대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지식인이었다. 현실에는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였으나 역사의식은 크게 무뎠던 것 같다.

그래서 공로와 과오를 함께 안고 있는 유진오의 삶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의 친일행위와 권력지향성의 처신은 ‘반면교사’로, 헌법 초안과 3선 개헌 반대투쟁은 ‘정면교사’로서의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는 저자의 말처럼, 그의 공과를 공정하게 기록한 이 평전이 역사의 법정에 한 사료가 되기를 바라본다.

더불어 수많은 공로를 지녔음에도 ‘유진오 빈소 시위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지식인이 시대정신을 잊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날의 지식인이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소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3·1운동·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음악회, '백년의 약속'



는 처절했던 항일독립운동 당시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의 작품들과, 이번 음악회를 위해 선정된 작품들을 클래식, 팝, 댄스 등의 다양한 장르로 전했고, 2부 오페라 '바람과 구름이 되어'는 항일 독립운동 좌우 진영을 대표하는 작곡가 한유한의 오페라 '아리랑'과 정윤희의 오페라 '망부운'을 하나의 작품으로 각색·편곡해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아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음악회 '백년의 약속'이 6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임웅균 교수가 예술총감독을 맡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은 올해, 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음악회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자 기획된 '백년의 약속'은 서울 공연에 이어 6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도 공연되었다.

최고의 제작진과 250명이 넘는 출연진으로 구성된 대규모 공연 '백년의 약속'은 1부 콘서트, 2부 '오페라'로 구성돼 다채로운 작품을 하나의 공연으로 선보였다. 1부 콘서트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 기념식



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평화의 역사,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또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의 진실을 세계로 알린 외국인 유족들도 함께했다. 고(故) 위르겐 힌츠파터 기자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씨와 5·18 당시 광주기독병원 원목으로 지난해 타계한 찰스 베츠 헨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헨틀리 씨도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 69주기 추모식 개최



백범 김구 선생 69주기 추모식이 6월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백범 김구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독립유공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김구 선생은 구한말 자주독립을 위한 의병활동과 계몽운동을 벌였고, 일제강점기인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을 지냈다. 광복 후 귀국한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서울 경교장에서 암살됐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6·25전쟁 68주년 기념식 개최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제68주년을 맞아 6월 25일 잠실체육관에서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중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6·25 참전유공자와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인사와 각계 대표, 시민과 학생, 장병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제68주년을 맞아 6월 25일 잠실체육관에서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중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6·25 참전유공자와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인사와 각계 대표, 시민과 학생, 장병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으며, 기념공연을 통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제8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역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의병의 날의 뜻을 기렸다.

의병의 날은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경남 의령을 시작으로 경북 청송, 충북 제천, 강원 춘천 등 의병의 정신이 울곧게 계승되고 있는 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올해 기념행사가 열린 운강이강년기념관은 한말 문경, 제천, 영월 등지를 중심으로 활약한 운강이강년 선생(李康季 · 1858~1908)의 의병활동 상황의 전시와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는 곳이다. 특히 2018년은 운강 선생이 순국하신 지 110주년으로 매우 뜻깊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사라 할 수 있다.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6월 1일 문경에 있는 운강이강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8회를 맞는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최고일 국회의원, 윤종진 경기도 행정부지사, 권기섭 문경시장 권한대행, 각 기관·단체장과 김한수 대한민국 의병기념사업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의병 관련 단체 및 후손,

봉오동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육사 명예졸업장 받는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봉오동전투전승 제98주년 기념국민대회가 6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대한독립군 연합부대가 중국 길림성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을 섬멸한 독립전쟁 사상 최초의 대첩이다.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이 벌인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다. 이 전투로 모든 독립군 부대의 사기가 충천했고,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도 높아졌다.



정진경 육군사관학교 교장(중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홍범도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추서하고, 우리 국군이 홍범도 장군의 위업과 독립전쟁의 전통을 계승해 호국정신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박유철 광복회장, 김대식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 윤종오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그리고 해군 최신에 잠수함 홍범도함의 용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한우성 이사장 “재외동포, 군 창설에 공헌” … 합참서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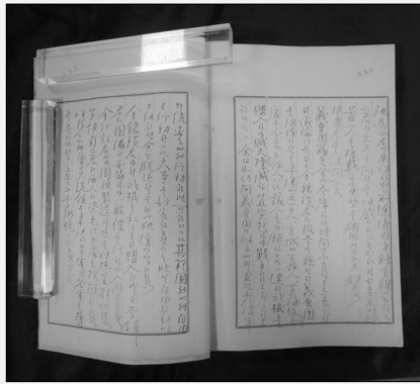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6월19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강당에서 지휘부 간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를 소개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간부가 참석한 특강에서 한 이사장은 ‘국군과 재외동포’를 주제로 우리 군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기여와 군사적 독립운동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에서 독립투사를 양성하는 요람이었던 신흥무관학교와 육군무관학교, 임시정부 공군 양성기관이었던 월로우스비행학교, 재외동포로 세계 제2차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 최초 비행장교였던 박희성, 월로우스비행학교 창설 자금을 지원한 재미독립운동가 김중립 등 대한민국 군 발전 공헌 사례와 역사적 의의를 조명했다.

한 이사장은 강연 후 “공군 창설의 기원이 됐던 비행학교 등 재외동포가 우리 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점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며, “모국과 동포사회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에 대한 교육이 지속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활동 기록한 <도산 안창호 일기> 등 3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제주 4·3 수악주둔소> 및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도산 안창호 일기(사진)>을 포함한 총 3건(관동창의록 2책, 안창호 일기)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 중, <안창호 일기>는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1878~1938)가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 등으로 역임하던 시기의 활동을 기록한 일기다. 1920년 1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1921년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8개월의 기록으로,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용지에 썼으며 3책으로 되어 있다.

이 일기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이 기록한 당시의 일기 중에서 공개된 것으로는 유일하며, 안창호가 직접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임시정부 초창기의 활동과 조직운영, 참여인사들의 면모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하는 일기는 안창호의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정부는 안창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8년 5월, 6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강만길		2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 철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학노	20,000	20,000
곽태원	5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학효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배다지	10,000	10,000	이향중	30,000	3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상운	5,000	5,000	이해나	20,000	
김광림	30,000	30,000	배해원	10,000	1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대현		30,000	백부원	10,000	1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동수	30,000	3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빙인섭	30,000	30,000	임진택	5,000	5,000
김률근	10,000	10,000	서동희	5,000	5,000	임홍재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서봉수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빛나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삼웅	20,000	20,000	석혜진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채령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신윤경	50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신태영	10,000	10,000	전우규	30,000	30,000
김영광	30,000		신희범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영방	10,000	10,000	심옥주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영일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용수	5,000	5,000	안재웅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 위	20,000	20,000	안효진	10,000	10,000	정현주	50,000	50,000
김은수	10,000	10,000	양윤모	10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양인선	10,000	10,000	조선희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염기남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영빈	5,000	5,000
김정인	20,000	2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용욱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오정섭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진현	50,000	50,000	원영애	20,000	20,000	조희환	20,000	20,000
김태동	30,000	30,000	유덕곤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태원	10,000	10,000	유영일	30,000	30,000	차영조	20,000	
김판수	5,000	5,000	윤용황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학근	20,000	20,000	윤종순	5,000	5,000	최권행	30,000	30,000
김혜련	20,000	2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윤한욱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석우	50,000	50,000
남만우	100,000	10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수희	30,000	3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기자	10,000	20,000	최희주	10,000	10,000
노수현	10,000		이동진	20,000	20,000	한의석	10,000	10,000
노영택	10,000	1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한홍구	20,000	2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함세웅	30,000	30,000
류동연	20,000	20,000	이상훈	20,000	20,000	홍범식	20,000	20,000
류한수	30,000	30,000	이석문	10,000	10,000	홍석천	5,000	5,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양순	20,000	20,000	홍용희	1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황명하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박성순	10,000		이우재	10,000	10,000	황인자	30,000	30,000
박아영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박익란	20,000	20,000	이종찬	100,000	10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창윤	10,000	10,000			

2018년 5월, 6월 특별회비

회원명	5월	6월
(주)오토오티오	18,000,000	18,000,000
이병국		1,3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③

유림과 서대문형무소

독립운동가 유림(柳林)의 본명은 류화영(柳華永)이다. 서대문형무소 수감 기록인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에도 그의 이름은 류화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명치(明治) 32년 5월 23일생으로 신분은 상민이며 직업은 무직(無職)이다. 신장은 척·촌·분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1米660”으로 기록되어 있어 166cm임을 알 수 있다. 본적은 경북 안동 임북(臨北) 계곡(桂谷) 542번지로, 태어난 곳이라고 함께 표시했다. 주거지는 중국 봉천 십환방(十宦房, 심양) 상부지(商埠地) 22경로(經路) 367호 원내(院內) 301호로 되어 있다.

처벌될 당시 죄명은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형명형기에 징역 5년이라 적혀 있다. 경성복심법원에서 인도 받았으며, 입소는 소화 8년(1933년) 7월 6일이다. 출소는 소화 12년(1937년) 10월 8일로 되어 있다. 형기 5년을 다 채운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출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카드 왼쪽 하단 모서리에 ‘축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감옥 생활 중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이며, 검거했던 경찰서는 함경남도 원산 경찰서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림의 모습은 단정하게 자른 머리를 이마가 흰히 드러나 보이도록 뒤로 넘기고 동그란 모양의 안경테를 쓴 모습이다. 왼쪽을 응시하는 듯한 모습이며, 콧수염은 잘 정돈해 ‘八’(字) 모양으로 길렀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그의 모습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입은 굳게 다문 표정을 하고 있으며, 차렷 자세로 촬영을 했다. 촬영 일자가 소화 8년 4월 26일로 적혀 있어,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미결감에서 촬영한 것이 확인된다. 수인복은 약간 두툼한 겨울철 수인복을 입었으며, 왼쪽 어깨에서 명치 방향의 사선으로 “柳華永 九二四”라고 쓰인 인식표를 붙이고 촬영했다. 수인번호 924번이다.

유림은 젊은 시절 자강회를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했으며, 1919년에는 3·1운동에 가담했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군정서 특파원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활동했다. 1921년 신한청년당원으로 항일구국활동 전개, 1922년 대한적십자회 부회장, 1928년 정의부 활동에 참여했다. 1929년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이란 결사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다, 일정에 체포되어 판결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것이다.

수감생활 이전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경험들은 형무소에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출옥 후에도 그는 북경(北京), 천진(天津) 등지에서 한중항일연합군(韓中抗日聯合軍)을 조직하려는 등 일본에 대항하고자 노력했다. 그후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1942년 12월에는 임시의정원 경상도 대표의원에 선출되었고, 1943년 새로 설치된 선전부에서 총무·편집·발행의 3과와 함께 선전위원회를 두어 일체의 선전사업과 각종 선전 지도를 총괄했다. 아울러 임시헌법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개수안(改修案)을 박건웅, 조시원 등과 제출했다. 1944년에는 국무위원에 선출되어 광복 시까지 활동하다가 귀국 후에는 독립노동당(獨立勞農黨) 당수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러시아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2018. 7. 19. 목 ~ 2018. 7. 24. 화 (5박 6일)

답사지역 : 자루비노-크라스키노-우수리스크-라즈돌노예-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_ 국내외 대학(원)생 25명 내외

선발대상 _ 역사와 민족의식이 투철한 남녀대학생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접수기간 _ 서류접수 2018년 5월 21일(월) ~ 2018년 6월 6일(수)

신청방법 _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서 접수

참가비 _ 120만원 (일체경비 포함)

선발발표 _ 2018년 6월 7일(목) 본회 홈페이지

선발자워크숍 _ 2018년 6월 29일(금) 백범기념관

기타 _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참조
참가자 전원에게 답사 수료증 수여

주최 _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